

大生機械株式会社

서울特別市 九老區 加里峰洞 327-30
 (輸出産業工業 3團地)
 代表電話 : (02) 839-2121 ☎ 112
 F A X : (02) 839-2113



구로구 가리봉동 327-30 통칭 한국수출산업공단 3단지에 위치한 대생기계(주)를 찾았다. 이 회사에 처음 들어서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예쁘다는 것이다.

건물 색깔의 조화, 공장 입구에서 마당등 외관을 봐서는 전혀 기계공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다만 공장 한켠에 수출되기 위해 적재되어있는 기계를 보고서야 생산품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대지 2000평에 건평 1500평 가량의 이 회사는 3층의 사무동 건물과 2층의 공장 생산동 건물, 1층의 생산동 등 총 3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사 내부 전체가 마치 전자제품이나 의약품등을 생산하는 회사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내부 곳곳에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가 걸려있다.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계와 공장으로 부터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색의 조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건물의 색과 내부장식, 그리고 종업원들의 작업복 색을 선정했습니다.”

대생기계(주) 신현교 사장의 관심은 단순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종업원이다. 따라서 신사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종업원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는가에 있다.

대생기계(주)의 예전 상호는 영풍씨에스(주)였으나 작년 9월 신규 ITEM의 개발 성공과 양산 체제 돌입을 계기로 마케팅 측면이 고려되어 부득이 변경되게 되었다.

국내 청정 및 CLEAN ROOM이 불모지대였던 1975년 부터 HEPA 및 MEDIUM FILTER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청정 및 CLEAN이라는 개념을 심

기 시작하였고, 점차 CLEAN EQUIPMENT 그리고 항온항습기 및 적은 규모의 공간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CLEAN ROOM화 할 수 있는 ACU와 제철 및 대규모 공장, 전국 시도 하수처리장 PLANT등에 사용되는 WET & DRY AIR FILTER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CLEAN ROOM 설비 및 항온항습, 환경설비등의 PLANT 공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는 요즈음 수요가 늘고있는 팽이버섯 재배 시설인 C/R 및 냉동·냉장시설 공사를 많이 수행하여 KNOW-HOW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직 취약한 동·식물 및 식품관련 산업에 본 환경시험설비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궁금하였던 신규 ITEM이란 볼링 핀세터 (BOWLING PIN SETTER)로서 볼링장에 한번쯤 가본 사람은 누구나 레인 저쪽끝에서 레인 위의 핀을 가지런히 내려 놓거나 또는 쓰러진 핀을 정리하는 장치를 보게 될것이다. 이 장치는 볼링장의 가장 핵심 장치로서 일반 사람들은 전면에 가려진 그림이 그려진판(RAKE BOARD)에 가려 자세히 볼 수 없으나 이 기계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미국의 AMF, B/W(브론스워), 대생의 DACOS II 모델로 3개 회사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대생기계도 세계 3대 볼링핀세터 생산업체중 한 곳이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C/R 및 냉동공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ENG 사업부"와 신규로 추가된 볼링 핀세터를 생산하는 "기계사업부"가 있으며 종업원수 150명, 자본금 6억원에 작년 매출액은 150억원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억원이다.

생산동 건물 1,2층 역시도 깨끗이 정리정돈 되어있고 자동화 설비가 많이 갖춰져 있다. 집채만한 CNC MACHINNING CENTER를 비롯해서 생산성 및 정밀도가 뛰어난 CNC 선반 및 밀링이 여러대 있고 그외 여러 판금 제작 및 가공의 장비가 정렬되어 있다. 아! 이런 기계공장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이 나온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그 밖의 다른 경영전략들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런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경영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운영되는게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상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것은 사장 한 사람에게 의해서는 절대로 만들수 없고 종업원들이 만들어야 하며 사장은 그런 종업원들을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하고 신사장은 말한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국제 규격의 배구장, 농구코트, 족구장외에 일반 유료 헬스장에 비해 시설이 전혀 손색이없는 30여평의 헬스장 그리고 2개의 레인을 갖춘 볼링장 및 식당이 갖춰져 있다.

바닥에 흰색 대리석이 깔려있어 고급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휴게실을 겸한 라운지와 일반 사우나 수준의 샤워실과 탈의장이 마련되어 있어 복지 시설은 어떤 회사보다도 잘 갖춰져 있다.

"그간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것을 극복해 나갈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따라준 종업원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 자신의 경영 방침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할때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신사장은 경영 철학을 말한다.

대생기계(주)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은 결국 종업원 자신의 개발을 통해 기업이 발전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작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 임직원이 맡은 직종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올해 또한 교육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해 놓고 있다.

올해 목표는 자동화와 함께 정보화를 보다 더 강화하고 '95년에는 ISO 9001 시리즈 인증획득을 위한 준비 체계를 갖추고 세계일류 기업을 목표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대생기계(주)를 기대해 본다.